

海外業界動向

세계의 에어컨 수요 동향

전년도의 일본 국내 룸 에어컨시장은 소비침체와 각사 판촉전의 이상 기상에 의해 전년대비 15% 감소한 512만대에 머물렀으나, 세계시장에서는 동남아시아가 전년대비 12% 증가한 215만대, 중동지역이 전년대비 15% 증가한 135만대, 중남미가 전년대비 11% 증가한 70만대로 북미, 중국시장에서 대폭적인 신장을 기록했다.

또한 감소한 지역은 일본을 비롯해, 구주가 전년대비 25% 감소한 61만대, 대양주가 전년대비 7% 감소한 14만대에 머물렀다.

이 결과 전년도 세계시장의 룸에어컨 수요는 전년대비 11% 증가한 1,577만대로 일본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견실했다고 할 수 있다.

이제까지 세계시장에서는 세퍼레이 타입의 수요가 신장되어 왔는데, 전년도 수요의 특징은 북미시장의 수요확대로 윈드타입의 수요가 전년대비 17% 증가한 815만대의 신장을 보인 것이다. 단, 북미를 제외하고 금후에도 세계적으로 세퍼레이트 타입에로의 수요이전이 강해, 세퍼레이트 타입의 구성비가 50%를 초과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도의 예상은 일본시장의 600만대에 더하여 북미가 10% 증가한 309만대, 중남미 10% 증가한 70만대, 중국은 22% 증가한 290만대, 동남아시아 17% 증가한 231만대, 대양주 10% 증가한 40만대, 중동 10% 증가한 37만대, 구주 10% 증가한 67만대, 아프리카 10% 증가한 29만대로 예상되며,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의 신

장에 힘입어 두자리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룸 에어컨시장은 전년도의 수요침체에 의해 재고증가가 문제되고 있으나, 세계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중국의 대폭적인 확대가 기대되기 때문에 거꾸로 물품부족 기미도 있다. 국내 에어컨 생산업체들은 해외생산품을 중국 시장에 투입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미 착수하고 있는 중국에서의 현지생산을 가급적 빨리 가동시키는 것이 과제라 할 수 있다.

작년 세계 반도체시장 호조

미국 조사회사인 데이터퀘스트는 최근 '93년도 세계반도체 시장조사를 발표하였는 바, 퍼스널 컴퓨터 시장용의 수요호조에 더하여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수요확대로 업계전체로는 매상이 전년대비 27% 증가하여, '88년도에 기록한 33% 증가 이래 비약적인 성장을 기록하였다. 동사는 '94년도에 신장률은 다소 둔화하지만, 계속하여 시장은 확대기조를 보일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제품별로는 메모리와 마이크로 콤퍼넌트IC의 신장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IBM은 '93년부터 외판활동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동조사에서는 IBM을 포함한 것과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나누어 숫자를 제시하고 있다.

'92년도의 조사결과에는 IBM은 포함되지 않았다.

제품별 판매액 (단위: 백만불)

	IBM 포함			IBM 비포함	
	'92	'93	전년대비	'93	전년대비
메모리	15,626	23,561	50.8%	22,428	43.5%
마이크로 컴퓨터	14,359	19,970	39.1	19,633	36.7
로직 IC	12,918	16,185	25.3	15,125	17.1
아날로그 IC	10,180	12,359	21.4	12,359	21.4
하이브리드 IC	1,335	1,482	11.0	1,482	11.0
소계	54,418	73,537	35.1	71,027	30.5
디스크리트 디바이스	8,155	9,101	11.6	9,101	11.6
광반도체	2,688	3,006	11.8	3,006	11.8
합계	65,261	85,641	31.2	83,131	27.4

지역별 소비액 (단위: 백만불)

	IBM 포함			IBM 비포함	
	'92	'93	전년대비	'93	전년대비
북미	20,430	27,998	37%	26,669	31%
일본	20,579	24,652	20	24,213	18
구주	12,218	15,486	27	15,077	23
아시아·태평양	12,034	17,505	45	17,172	43

미국 소니·세루스 & 마케팅, '94년 신제품 전람회 개최

소니·일렉트로닉스사의 한부문으로 미국에서 소니 제품의 판매서비스를 행하는 소니 세루스 & 마케팅은 최근 뉴저지주 디네크의 마리우드 호텔에서 '94년 신제품 전람회를 개최하고 하이파이 오디오와 모빌, 일렉트로닉스 각각의 부문에서 약 50기종씩의 신제품을 소개하였다.

하이파이 오디오 분야의 피터, 브래디 마케팅 매니저에 의하면 '94년의 상품전략으로써, ① 영상지향 오디오 ② 대용량 CD 체인저 ③ 아날로그 카세트에서의 MD에로의 리프레스라는 '93년 노선에 더하여, ④ 락크 시스템의 재강화를 전개하고, 영상오디오에서는 작년 프론트 타워 스피커에 돌비·프로로직 테코더, 170w앰프, 서브위퍼, 센타 채널, 드라이버를 내장한 시스템「SA-VA3」(950달러)을 선보였으나, 금년에는 이러한 기능을 포함시킨

100w 시스템「SA-VA1」을 7월부터 700달러로 판매하고, AV레시버 6개 기종도 4월부터 6월 사이에 판매할 예정이다.

대용량 CD체인저에서는 작년에 도입된 100장의 CD체인저 「CDP-CX100」(1,200달러)에 더하여, 동일한 100장의 체인저이면서 보급가격모델로써 CX-80(가격미정)을 7월부터 도입하여, 디논, 파이오니아, JVC 등에 의한 100장 이상의 대용량 CD체인저기의 증가에 대응하고 있다.

MD관련에서는 미국에서 독자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MD 홈테크「MDS-501」에 주력하여 2월부터 약 1,000달러에 판매하며, 또 락크 시스템은 금년에 7시스템으로 충실을 기하고 있는데, 그중 6시스템은 종래의 레코드 수납 스페이스에 앰프내장 서브우퍼를 설치하고 있으며, 또 4시스템은 센타 채널 스피커 서라운드 사운드 스피커를 갖추고 있다.

한편, 오토 일렉트로닉스 분야에서는 GPS(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와 CD-ROM지도 정보를 이용한 네비게이션 시스템의 도입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것은 네비 연구포멧에 준거해, 5인치 칼라 LCD모니터를 탑재한 것으로, 일본에서는 이미 도입이 끝난 시스템의 미국판이나, CD-ROM지도정보의 제작에서는 Etak사(캘리포니아주 메론파크)와 제휴해 이미 CD지도가 완성되어 있는 캘리포니아를 시작으로 금년 후반부터 시장전개를 준비중이다.

시스템은 지도 디스크 플레이어, GPS안테나, 5인치 칼라 LCD 디스플레이, 리모콘으로 구성되며, 2,000달러 이상의 가격이 될 전망이다.

MD관련은 1월의 CES에서 발표한 4장 MD 로터리 메카니즘 탑재의 MD인더쉬 체인저 튜너「MDX-400」(1,300달러, 3월기준) 2개피스의 컴퓨터 MD체인저(1,000달러, 4월기준) 및 앰프내장 MD 리시버「MDX-100」(1,000달러, 4월기준)의 3개기종을 또 CD관련에서

는 CD리시버 6기종 등 합계 20기종의 인더쉬와 CD체인저인 5기종을 소개하고, 앰프에서는 오디오 MOSFET 탑재 2기종을 포함 8기종을 선보였다.

미, 벨 아틀랜틱이 2개지역에서 디지털 셀룰러전화서비스, TDMA방식으로 실시

벨 아틀랜틱의 셀룰러 사업부 벨 아틀랜틱 모빌(BAM)은 최근 워싱턴 DC와 발체모아 지구에서 TDMA방식 디지털 셀룰러 전화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CDMA방식에 투자를 추진하고 있던 동사는, 최초의 디지털 서비스를 개시하는데 있어 TDMA방식을 채용키로 결정한 것으로, 「특히 셀룰러 전화의 사용빈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디지털화의 수요가 높는데, 현지점에서 실용 가능한 기술은 TDMA뿐이다.」라고 동사는 설명하고 있다.

TDMA와 CDMA는 용량적으로 CDMA가 크지만 개발이 늦어지고 있어 TDMA와의 개발 시차가 클 것으로 보인다. 벨 아틀랜틱은 「시장에 맞는 방식의 고려라는 측면에서 금후에는 CDMA의 채용가능성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나이넥스의 셀룰러 사업부인 나이넥스모빌은 뉴욕의 도시권을 중심으로 CDMA방식의 실험을 개시하였는데, 과거 4년간의 CDMA 무선 PBX 등의 실험을 거쳐 CDMA방식의 채용을 결정한 것으로 서비스의 개시는 '95년을 예정하고 있다. 그외에 US웨스트가 CDMA시스템을 '92년과 '93년에 모토로라로부터 구입해 워싱턴주의 아틀랜틱 교외지역에서 실험을 행하고 있다.

소니는 켈과의 합병으로 CDMA방식 셀룰러 전화와 PCS기기의 개발 제조를 시작하였는데, 월 2만대 규모로 생산하여 양사가 독자적으로 판매하며, 제품발표는 '95년초에 실시할 예정이다.

TDMA방식 채용의 전화단말기는 오키 텔레콤, 노키아, 모토로라, 테크노 폰, 브라우 폰크, 에릭슨 외에 미쓰비시, NEC, 무라테크(무라다기계)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에릭슨GE는 '92년 6월 시장에 참여하여 누계 10만대 출하를 달성하였는데, 동방식은 미국의 플로리다주와 시카고, 로스엔젤레스, 뉴욕, 포트랜드, 시애틀, 샌트럴루이스, 달라스와 캐나다의 퀘벡, 토론토, 몬트리올의 각도시에서 이미 상용화되고 있다.

대만, DCC테크 생산 추진

대만에서 DCC(디지털 콤팩트 카세트)테크의 생산이 추진되고 있다.

대동, 북향전자, 영복전기의 3개사는 네덜란드의 필립스로부터 DCC의 생산기술이전에 대해 필립스측과 계약을 추진중이다. 대만에서의 DCC생산과 관련해 3개사는 공동출자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투자액은 2.5억 ~ 3억 대만달러(약 10 ~ 12억엔)를 예정하고 있다.

세계 아웃소싱 시장 성장을 둔화

IDC가 최근 발표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작년도 세계 아웃소싱업계의 신장률은 7.1%로 예상되었던 16%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전문지 「컴퓨터 복해」에 게재된 보고서에서 IDC는 외부의 서비스회사에 데이터 처리업무를 일괄위탁하던 내부에서 처리하던 상황은 그다지 변하지 않아 차라리 내부에서 데이터처리를 행하는 것이 플렉시빌리티가 높다고 하는 의견이 User기업사이에서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세계의 전산기 서비스시장은 작년에 전년대비 4.6% 증가한 1,560억달러를 기록하였는데, 미국에서의 매상은 632억달러에 이르러, 신장률은 9.4%로 세계 평균의 2배에 달하였다.

세계 CD-ROM 드라이브 출하 금년도에 급속히 확대

세계의 '94년도 CD-ROM 드라이브 출하 대수는 전년대비 63% 증가한 1,360만대에 달할 전망이다. 드라이브의 고속화, 저가격화, 멀티미디어에의 응용 등으로 인해 시장이 급속히 확대될 전망이다.

<세계의 CD-ROM 시장추이>

(단위: 천대, 백만달러)

	'93	'94	'95	'96	'97	'98	'99
대 수	8,322	13,600	18,600	22,700	25,600	28,150	29,600
전년대비	(141%)	(63%)	(37%)	(22%)	(13%)	(10%)	(5%)
금 액	1,238	1,802	2,099	2,398	2,625	2,783	2,782
전년대비	(55%)	(45%)	(16%)	(14%)	(9%)	(6%)	(0%)

※자료: 프리만 어소시에이트 조사자료

이 숫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바바라의 컨설팅회사인 프리만 어소시에이트가 밝힌 것으로 동사에 의하면 830만대였던 '93년의 데이터축적용 CD-ROM 드라이브 출하대수는 금년에 1,360만대로 신장하고, '99년에는 2,960만대로까지 수요가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멀티미디어에의 응용, 새로운 소프트웨어의 등장, 하드, 소프트웨어, 복제비용의 저하 등의 요인에 의해 CD-ROM 수요는 더한층 활성화될 것이라고 동사는 분석하고 있는데, 특히 '93년에는 대수 베이스로 전년대비 141% 증가라고 하는 대폭적인 신장을 보여, Access시간이 400밀리초 이하, 전송속도가 종래의 것보다 2배나 빨라진 것 등을 수요호조의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이들 고속기는 '95년까지 시장의 주류를 이루고, '96년부터는 초고속기의 등장이 예상된다고 동사는 보고 있다.

한편, 금액면에서는 '93년에 12억달러였던 OEM용 출하액도 '99년에는 28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독일 텔레콤과 미국의 인텔, 퍼스널 회의용

디지털 AV기술분야에서 제휴

독일의 분데스포스트 텔레콤과 미국의 인텔사는 퍼스널 컴퓨터를 사용한 퍼스널 회의용의 디지털 오디오 비디오 기술분야에서 제휴하기로 하였다.

텔레콤은 3월 10일 뮌헨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최초의 합작제품을 소개하였다.

필립스, 부품·반도체 등의 호조로 '93년에 1,080억엔 흑자 기록

네덜란드의 필립스는 3일, '93년 업적에서 19억 6,500만 길더(약 1,080억엔)의 흑자를 계상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작년에 동사는 마쓰시다 전자공업에의 출하분 35%를 마쓰시다 전기산업에 매각하였는데 이것도 업적개선에 공헌한 것으로 나타났다.

'93년도 동사의 매출액은 전년대비 1% 증가한 588억 길더(약 3조 2,000억엔)이었다.

부문별로는 가정용전자 매출이 전년대비 2% 감소한 213길드로 적자폭은 감소하였지만 영업손익에서는 여전히 7,300만 길드가 적자이다.

조명부문에서는 동 3% 증가한 78억 8,000길드로 영업손익은 동 4% 증가한 10억길드의 흑자를 계상하였다.

부품 반도체 부문에서는 동 13% 증가한 68억 9,000만길드, 영업이익도 '92년의 4억 6,000만 길드에서 10억 3,000만 길드로 크게 신장하여, 부품·반도체 쌍방 모두 매상과 수익면에서 호조를 보여 주었다.

한편, 업무용 시스템에서는 매상이 동 7% 감소한 92억 5,000만 길드로 영업이익액은 전년의 6억 6,300만 길드에서 1억 7,700만 길드로 크게 후퇴하였다.

소니, 액정모니터 부착 무비로 시장공세나서

소니는 카메라 일체형 VTR(무비)시장에서, 대히트한 「TR55」이후 적극적인 보급공세에 나서고 있다. 동사가 2월 10일부터 전국에서 일제히 발매를 개시한 3형 모델 카메라 액정 모니터를 탑재해 콤팩트 카메라 감각을 살린 “핸디캠 코믹스” 「CCD-SC7」(12만 8,000엔)가 예상이상의 호조를 보여, 크게 수요가 예상되는 봄상품전을 앞두고 대대적인 광고 판촉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카메라 일체형 VTR은 샤프가 업계 최초로 액정 모니터를 부착해 발매하여 새로운 시장개척이 성공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소니가 액정모니터 부착으로 본격적인 공세를 가함으로써 카메라 일체형 VTR의 신시장 조성이 일거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니는 3형 모델의 카메라 액정모니터를 탑재한 본체 중량 약 730g의 콤팩트한 하이에이트 방식 카메라 일체형 8mm비디오인 “핸디캠·코믹스” 「CCD-SC7」을 2월 10일부터 발매를 개시하였는데, 발매이후 매상이 호조를 보여, 당초 월 3만대를 생산하려던 계획을 크게 수정하고 있다.

동제품은 샤프의 「액정 뷰캠」과 마찬가지로 액정모니터를 탑재하고 있으나, 이러한 기능 외에 “찍는 즐거움”을 철저히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3형 모델 칼라 액정 모니터에 더하여, 피사체를 콤팩트 카메라 감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광학식 파인더도 탑재하고 있다. 「카메라 일체형 VTR시장이 침체 했던데는 사용법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요인의 하나로 코믹스는 종래의 User와 다른 전혀 새로운 User의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선전·판촉전략도 「다양한 사용법」을 중점적으로 어필하고 있다.

카메라 일체형 VTR시장은 2년 연속시장의 침체가 있는 뒤 작년부터 서서히 상승기미를 보이고 있는데 3월 7일부터는 후지코의 사진 필름에서도 2.5”형 액정모니터가 부착되는 「심플하이8」(12만 5,000엔)을 발표하고 있다.

금후 동메이커인 소니가 「코믹스」로 본격적인 새로운 시장조성에 뛰어들므로써 금년의 시장수요는 크게 확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 미국과 연계하여 CATV사업 전개

일본의 도시형 CATV 약 180개국의 대세대 가입률은 3%정도로 미국의 60%에 비해 극히 낮지만, 최근 장래의 멀티미디어 시대를 앞두고 CATV에의 관심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작년 12월 우정성은 CATV사업에 관한 규제완화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 외자비율제한의 상향조정(20%미만에서 1/3미만으로) 광역화 승인 등 대미전략외에 장래의 CATV를 발전시키려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이러한 것이 기폭제가 되어 해외의 CATV국과 통신사업자, 국내의 통신사업자 방송국 나아가 종합상사, 기기메이커의 CATV전략이 강화되고 있는데, 미국의 나이벡스는 토멘과 제휴하여 요코하마 TV로 통신서비스의 실험을 미국의 TCI는 스미또모 상사와 함께 스기나미 케이블 TV로 쌍방향 서비스 실험을 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미국의 RBOC(지역전화회사)와 CATV사업자, 프로그램 공급자도 사업에 참여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이중 이또오츄우 타임워너 연합은 주목해야 할 대상이다.

외국업체 뿐만아니라 국내기업도 CATV공세에 힘을 기울여 왔는데, NTT는 멀티미디어 시대의 중점전략의 하나로써 CATV와의 연계를 위해 '95년부터 약 30억엔을 투입해 온·디맨드 서비스를 포함한 실험을 개시할 계획이다.

CATV국용 프로그램 공급에서도 이또오츄우, 미쓰비시 상사, 스미또모 상사, 미쓰이물산, 닛쇼오이와이 등 종합상사의 움직임이 활발하며, 영화, 스포츠 등에서 서서히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반다이 세가 등의 게임계

소프트메이커도 CATV의 활용에 본격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세가 엔터프라이즈는 작년 12월부터 도쿄 케이블 네트워크로 시험 서비스를 실시중이다.

다수의 정보를 가정에 전달하는 데는 무선계나 광케이블 중 어느 것인가가 필요하며, 이 전송로를 쥐는 것이 멀티미디어 시대의 인프라 비즈니스로서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ISDN을 표방한 NTT와 ISDB를 발표한 NHK는 가정에의 정보전달 미디어에서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움직임은 활발하다.

현재 CATV는 난시청 대책 등으로 이미 800만 세대에 달하는 가입자를 갖고 있으며, 이중 100만 세대이상은 도시형 CATV로 이를 활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 CATV쟁탈전은 금후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93년도 가정용 전자기기, 해외생산진전과 엔고로 수입급증

가정용 전자기기의 '93년 생산액은 3조 627억엔으로 전년대비 14%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92년의 20%감소에 이어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인 것이다.

피크시었던 '85년에는 4조 9,000억엔이었으나 작년에는 3조엔대를 겨우 유지하는 데 그쳤다.

수출액은 국내 생산출하액의 상승으로 엔고전의 수출비율보다 8할이나 상승하였다. 수출의 피크는 '85년의 3조 8,000억엔으로 작년의 1조 7,000억엔대는 절반이하의 수준에 그친 것. 전년대비로는 23%감소, 전년의 16%감소에서 2년연속 대폭적인 감소를 보였다. 한편 작년의 국내출하는 1%감소한 담보상태로 '92년의 16%감소에서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내외수요의 비율은 결과적으로 같게 나타났다.

'93년의 생산액을 제품별로 보면, 영상기기에서는 칼라TV가 8%감소로 감소폭이 축소되

었고, 액정TV는 상반기의 대폭적인 감소의 영향으로 22%감소, VTR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25%가 감소하였으며, VD플레이어는 전년의 부진을 만회해 유일하게 증가를 기록하였다. 또 비디오 일체형 카메라는 19%감소로 전년의 34%감소에서 축소했다고는 하지만 수출의 부진으로 감소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음향기기에서는 일반 테이프 레코더가 2년연속 20%대비감소를 보였으며, 헤드폰 스테레오는 12%감소, 라디오 카세트와 테이프데크는 30%대로 감소하였다. 가라오케는 전년과 같은 수준이고, DAT는 21%증가 하였으나, 스테레오는 14%감소, CD플레이어도 11%감소하였다.

가정용 전자기기는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수입이 급증하였는데, 작년 8월의 전년대비 10%대의 증가에 힘입어 11월에는 33%의 신장세를 보였다.

수출에 대한 수입의 비율도 11월에는 15%로 상승하여 수출업계에 이번이 일어나고 있다. 수입의 증가는 국내생산은 감소하였으나 가전메이커의 해외생산에 의한 수입증가가 늘어난 때문이다.

생산은 국내에서 해외로 점차 이전되고 있는데, 수입은 거의 동남아로부터 들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도 확대경향에 있다. 칼라TV의 수입대수는 3년간 3.4배로 늘었으며 '93년에는 수입이 수출을 상회해 최초의 수입초과를 기록하였다.

'94년 1월에도 전년대비 95%나 증가하였는데 말레이시아로 부터 5배나 늘어 전체의 40% 이상을 점하였으며, 태국과 싱가포르 부터도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대만 전자기기 수출, 전년대비 9.4%증가한 207억 달러 기록

'93년도 대만의 전자전기기의 수출액은 207억 US달러에 달해 전년보다 9.4% 증가하였

다.

대만정부 재정부의 통관통계에 의하면 작년의 전자공업수출에서는 AV기기·전자부품 등의 전자제품과 전선·케이블 전력관련의 전기제품이 두자리 성장을 기록한 반면 정보기기 와 가정에서는 전년보다 하락하였다.

대만의 외국무역협회에서는 세계불황속에서 수출의 신장이 9.4%를 기록한 것은 대만의 전자전기산업이 세계시장의 Needs에 부응하고 있음을 증명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미국의 IBM과 캐나다의 케이블트론, 쌍방향 멀티미디어 서비스사업에 참여

미국IBM과 캐나다 제 2위 CATV회사인 케이블트론은 공동으로 쌍방향 멀티미디어 사업에 참여키로 합의함으로써 양사는 캐나다와 미국기업계 6개사가 제창한 UBI로 불리우는 캐나다판 정보수퍼하이웨이 계획에 참여하게 된다. IBM이 밝힌 바에 의하면 동사는 비디오 트론과 협력하여 UBI 프로젝트의 제1단계에서 가정용 단말(세트톱 박스)을 공동으로 개발하며, 동단말에는 IBM, 모토로라, 애플이 공동개발한 32비트 MPU 「파워PC」와 완전동화를 가능케하는 「MPEG II」규격을 채용한다.

금년 1월에 발표된 UBI프로젝트는 퀘백주를 중심으로 470만 5,000세대에 쌍방향 멀티미디어 서비스용의 가정용단말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으로 투자액은 11억 5,000만 캐나다 달러(약 600억엔)이다.

UBI의 제 1단계에서는 차세대의 디지털 가정용 단말을 퀘백주의 일부지역(3만4,000호)에 설치하고, 가입자가 홈 뱅킹, 에너지관리, 전자우편, 복권발표, 관공서의 서비스 등을 쌍방향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동 지역에서는 비디오 트론이 CATV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비디오 트론과 공동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IBM 멀티미디어 시스템 부문인 제네럴 매니저인 폴 로프트씨는 「UBI는 참

정보수퍼 하이웨이 계획으로 당사의 멀티미디어 기술과 통합기술을 최대한으로 비디오 트론에 공급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엔고와 해외생산이전 등이 반영되어 전자기기의 수입급증

엔고와 해외생산이전이 추진됨에 따라 전자기기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일본전자기계공업회가 최근 발표한 작년 1년간의 전자공업의 수입은 과거 최고인 2조 1,780억엔을 기록해 전년의 3%감소에서 6.5%증가로 크게 신장하였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칼라TV와 VTR 등의 가정용전자기기가 전년대비 10.5% 통신기기 등의 산업용전자기기가 동 10.2%로 각각 2자리의 신장을 기록하였고, 반도체의 수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전자부품·디바이수도 동 4.1%가 신장되었는데 이러한 수입확대 경향은 금년에 들어 더욱 박차가 가해질 전망이다.

작년도 일본의 전자공업은 수출이 10조 7,455억엔으로 전년대비 5.0%감소를 보였으나 수입은 2조 1,780억엔을 기록해 전년대비 6.5%신장을 기록하였다. 내역을 보면 가정용 전자기기가 1,724억엔으로 전년대비 10.5%증가 산업용 전자기기가 6,796억엔으로 동 10.2%증가 전자부품이 1조 3,078억엔으로 동 4.1%가 증가하였다.

가정용전자기기는 수량에서 칼라 TV가 378만대로 전년대비 58.6%증가하였고 VTR이 68만대로 동 39.6%의 급증세를 보였는데 이는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의 일본계 현지 기업거점으로 부더의 수입이 엔고를 배경으로 크게 신장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94년 1월에도 칼라TV는 전년 동일대비 95.1%가 증가하였으며 VTR은 동 4.0%증가한 6만대를 기록해 지속적인 신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칼라TV는 금년 봄부터 산요전기가

미국으로부터 소니가 말레이시아로부터 히다치가 중국으로부터의 각각 수입을 개시키로 하고 있어 더욱 수입이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산업용전자기기는 전화관련 통신기기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또 전자부품도 반도체의 수입확대 추진과 함께 일본계 해외기업으로 부터의 부품조달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전자공업의 수입은 '90년초 2조엔 규모를 달성한 이후 '91년에 2조 1,091억엔으로 최고로 기록하였다.

작년 12월에는 전년 동월대비 11.4%로 2자리 성장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엔고와 해외 거점으로부터의 완성품 및 부품의 수입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이러한 현상은 금년에도 계속되어 금액으로는 대략 2조 4,000억엔 정도의 2자리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93년도 일본의 전자부품·디바이스 수입, 전년 대비 4.1%증가

'93년도 일본의 전자부품·디바이스의 수입액은 전년 대비 4.1% 증가한 1조 3,087억 7,700만엔을 기록하여 전자디바이스가 수입증가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장성 무역통계에 의하면 '93년 12월 당월 수입액은 기기 부분품이 전년 동월 대비 6.8% 감소한 414억 300만엔이었으나 전자부품이 동 13.6% 증가한 195억 9,800만엔, 전자디바이스가 동 17.5% 증가한 484억 8,300만엔을 기록함으로써 전자부품·디바이스의 총수입액은 동 6.3% 증가한 1,089억 4,400만엔을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93년 1월 ~ 12월까지의 누계 수출액은 전년 대비 4.1% 증가한 1조 3,087억 7,700만엔을 기록하였고 이중 전자부품은 동 1.3% 감소한 2,269억 7,700만엔, 수동부품이 동 0.4% 감소한 611억 5,700만엔, 변환부품이 동 4.6% 감소한 708억 6,400만엔, 접속부품이 동 7.5% 감소한 540억 8,000만엔을 나타냈다.

한편 전자디바이스는 동 16.9% 증가한 5,645억 7,500만엔으로 이중 전자관이 동 4.7% 증가한 425억 3,500만엔, 반도체소자가 동 4.1% 감소한 523억 1,400만엔, 집적회로가 동 21.2% 증가한 4,697억 2,600만엔을 기기부분품은 동 5% 감소한 5,163억 2,400만엔을 기록하였다.

미국 마이크로 소프트와 TCI, 공동으로 가정용 TV를 단말기로 쌍방향 통신망 실험

미국 마이크로 소프트와 CATV의 초대형 메이커인 텔레커뮤니케이션즈(TCI)는 가정용 TV를 단말로 한 쌍방향 통신망의 실험을 공동으로 행하기로 합의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것은 마이크로 소프트의 광대역 네트워크용 소프트웨어를 TCI의 디지털망에 이식하는 것으로 실험개시는 금년 4/4분기를 예정하고 있다.

실험은 2단계로 나뉘어 실시되는데 제1단계에서는 워싱턴주 시애틀에 거주하는 종업원 가정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며 제2단계에서는 시애틀, 덴비의 TCI가입가정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행해 시장 조사를 실시할 계획인데 양사는 기술적 요소의 확립에서부터 소비자 Needs의 파악까지 일관된 협력체제를 확보하고 '95년에 시장 조사를 개시할 예정이다.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MS-DOS」 최신판 6.21 출하

미국 최대의 소프트웨어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동사의 PC용 기본소프트(OS) 「MS-DOS」의 최신판 6.21의 출하를 개시하였다.

로스엔젤레스에서의 재판에서 지난주 동사의 소프트가 스탭·일렉트로닉스사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정되어 1억 2,000만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었는데 최신판인 「MS-DOS」에는 특허 침해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하드 디스크의 용량을 2배로 늘린 기능인 데이터 압축 유틸리티 소프트웨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MS-DOS」이외의 동사제품에서도 데이터 압축 관련 코드를 제거하는 작업을 추진중인데 그 대상에는 메모리 카드용의 후레쉬·화일·시스템 윈도우즈 NT 「엑셀 5.0」 「파워·포인트 4.0」 「비주얼 CTT」등이 해당된다.

HA기기, 주택설비중 신장률 1위 기록

주택정보화기기(HA기기)는 현재 연율 10~15%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92년도의 출하는 500억엔을 돌파하였고 '93년도에는 600억엔에 가까운 출하를 달성하였다.

한편 동기기를 설치하는 가정수도 10% 전후의 실적으로 신장하고 있어 '92년도에는 7만호를 넘어섰으며 '93년도에도 8만호 가까이 기록되었다. 동기기는 현재 주로 APT, 연립주택 단지를 중심으로 보급이 진행되고 있는데 주택설비기기 중에서도 가장 신장률이 높은 분야가 되고 있는데 금후 '95년도에는 900억엔 전후의 시장으로 그리고 2,000년도에는 1,700억엔 전후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정보화기기는 주택정보시스템(각종セキュリティ, 홈 콘트롤, 텔레콘트롤, 현관 TV 모니터 등)과 집합주택용기기(관리실용 기기, 다세대주택 현관용 기기) 그리고 가스 누설경보기, 우편물 안전보관기, 센서류, 어댑터류 등으로 구성되며 접속되는 가전제품과 AV·정보관련기기 CBS, CS, 퍼스널컴퓨터 등)는 제외되는데 이들 접속되는 단말기기를 포함하면 HA의 대상상품은 일거에 1조 5,000억엔에 달하게 된다.

'90년도에는 387억엔으로 탄도셀시장과 같은 규모였으나 '91년도에는 4,465억엔으로 전년 대비 15% 신장하였으며 '92년도에도 '91년

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신장하는 등 주택설비 기기로서는 높은 신장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다세대 주택용기기의 신장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91년도 출하실적이 전년대비 1.8배나 증가한 약 28억엔 '92년도에는 50억엔 전후로 신장하여 '93년도에는 100억엔 가까운 시장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주택정보시스템중에서도セキュリティ와 현관 TV모니터가 신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데セキュリティ에 대한 의식의 고조와 직장생활하는 주부의 증가 문화생활의 향상 등으로 집을 비우는 일이 많을 것이 주요인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User의 HA기기 도입 형태로서는 주택구입시에 처음부터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금후에는 가전점과 공사점에서도 주택정보시스템의 판매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성시공형 상품의 출현외에도 시스템에 따라서는 공사비를 제외하고 30만엔 전후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최근 「HA 주택금융공고 할증 용자제도」가 개시된 것도 HA기기의 활성화에 한몫을 하고 있다.

기업 및 관련업체에서는 동기기사장에 대해 2000년도에는 1,700억엔 전후로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나 그 이상 성장할 여지도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퀀텀, 계속된 수요 증대에 따라 제품생산 확대

퀀텀은 자사 HDD의 수요 증대에 따라 공급물량을 확대키로 하고 자사의 제조 협력업체인 일본 마쯔시다 코토부키전자와 함께 제품 생산을 늘리기 위한 공동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데스크탑 PC용으로 제작된 ProDriveVTM 170, 340, 270, 540 제품들의 시장수요가 급속히 신장됨에 따라 이들 제품을 대량으로 신속히 생산하는데 이미 전력을 쏟고 있다. 퀀텀은 이들 신형 드라이브들의

생산을 시작한지 3개월만에 50만개 이상을 출하하는 저력을 보였다.

퀀텀 데스크탑과 포터블 저장장치 그룹을 총괄 운영하는 마이클 브라운 사장은 “이들 신형 드라이브에 대한 폭넓은 호응도와 주요 OEM고객들에게 채택되어가는 속도는 기대를 넘어선 것”이라며 “상위 10개의 PC 제조업체 중 8개업체는 이미 이 제품들을 내장한 PC를 생산하고 있다”고 전제. “상위 10개사를 제외한 기타 OEM고객 및 제품판매점들로 부터의 수요도 대단히 높아 현재의 상태로는 고객들의 모든 요구를 시간내에 충족시키기는 불가능한 상태”라고 밝히고 “이들 제품의 생산량을 높여 이번 분기중 이러한 상황을 신속히 완화하고 차분기부터는 계속적인 대량수요에 유연히 대처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1993년에 1,060만개 이상을 판매한 퀀텀은 최근 6개월 동안 매분기마다 280만개 이상의 HDD출하량을 보여 현재 출하량 면에서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다.

퀀텀, 중국시장에 본격진출

퀀텀은 최근 중국 북경에서 싱가포르 IPC사와 자회사인 IPC/Corex 테크놀로지(홍콩사와 자사 제품의 중국시장 총판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중국시장으로 진출하는 퀀텀의 첫 번째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계약은 즉시 효력을 발하며 이 계약으로 IPC/Corex 테크놀로지(홍콩)사는 앞으로 최고수준의 마케팅 지원을 중국내 퀀텀제품 판매점에 제공하며 제품 판매망 구축과 퀀텀 브랜드의 인지도 제고를 담당하게 된다.

조인식에서 윌리엄 밀러(William J Miller) 퀀텀 회장은 “중국 PC시장의 막강한 성장 잠재력은 퀀텀의 중요한 사업 기회”라고 말하고 “IPC/Coprex 테크놀로지(홍콩)사와의 계약 체결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우리의 공동 노

력으로 중국 컴퓨터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1992년에 12.7%의 GNP성장률을 기록했는데 PC시장도 이 두자리 숫자의 경제 성장에 힘입어 연간 65%의 눈부신 성장을 했다. 총 인구의 60%가 도시인구이며 73%가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중국은 엄청난 PC시장으로 등장했다.

“영국 GPS사, NTSC/PAL 변환용 고성능 칩 개발”

영국의 GPS사는 디지털 신호를 NYTSCSK PAL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할 수 있는 고성능 칩 VP536을 개발했다.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바꾸어야 하는 멀티 미디어, 비디오 게임, 퍼스널 컴퓨터, 비디오 디스플레이, 특수 시각 효과 분야에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는 VP536칩단 시그널 합성기술을 응용, 기존의 8비트보다 향상된 9비트 이상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되었는데, 가격은 오히려 기존의 8비트 제품보다 싸다는 게 GPS측의 설명이다.

VP536A와 VP536B의 두가지 버전 중 VP536A는 디지털 신호를 NTSC로, VP536B는 NTSC와 PAL로 동시에 전환할 수 있다.

콘트라스트가 수정된 RGB, YUV 디지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VP536은 앞으로 13.5 MHz 데이터까지 처리 가능한 신규버전까지 개발될 예정이다.

